

#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 CFC 물질 2000년까지 사용 중단

최근들어 환경문제는 범세계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때문에 우리는 매일 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다양한 환경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번 호부터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의 환경 전문용어 풀이와 환경관련 조사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註

**지** 구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CFC(염화불화탄소:통칭 프레온 가스라고도 함), 할론(새로 개발된 消火劑)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국제환경협약. 정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74년 미국 과학자들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CFC가 태양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힌 뒤 77년부터 국제적으로 CFC 사용규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약 10년간 환경전문가회의와 정부간 회의를 거친 끝에 85년 3월 '오존층 보호에

관한 빈협약'이 이뤄졌으며 이어 87년 9월 몬트리올 의정서가 정식 채택돼 89년 1월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 1월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2년 2월에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 신청하여 같은 해 5월 가입국이 되었다. 한편 대체 프레온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상용화 단계에 이를 것이 예상되나 대체 프레온을 기 상용화한 외국 기업의 양산에 따른 가격 인하 경쟁으로 국내 업체의 개발 및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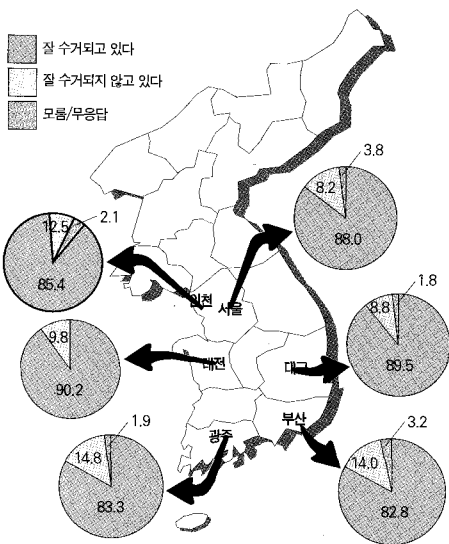
## 환경이야기

### 거주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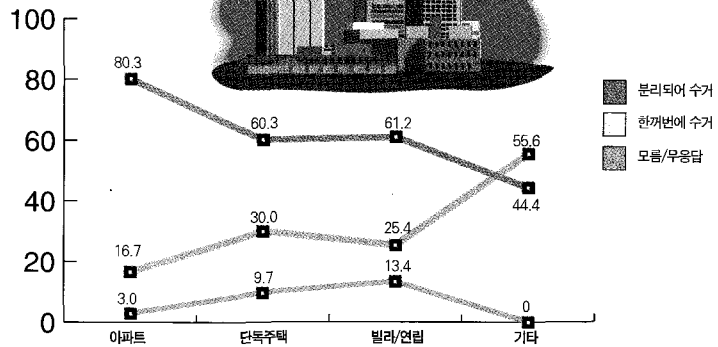
- 조사개요**
- 1) 조사지역 : 6대 도시
  - 2) 조사대상 : 기혼 여성 511명
  - 3) 조사방법 : 전화면접
  - 4)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 지역별

- 잘 수거되고 있다
- 잘 수거되지 않고 있다
- 모름/무응답



#### ■ 주택형태별



#### ■ 연령별

